



# 숲과사람들

“숲과 사람들(Forest & People)” 2012년 1월 1일 (제16호)

발행처, 생명의숲국민운동 회임활동위원회 / 발행인, 회임활동위원회 위원장(안은주) / 자문, 이수현 사무처장 / 기획·취재·편집, 생명의숲 풀잎소리 / 편집(컨텐츠 담당), 김경숙, 안민자, 양중은 회원 / 회원기자, 김영구, 류준희, 박서영, 박혜련, 백선길, 우상권, 이정명, 이흥연, 임홍순, 정대현, 정희, 홍용식 회원 / 편집(디자인 담당), 객인호, 황지현 회원

생명의숲 홍보대사 안도현 시인이 회원님께 띄우는 2012년



## 새해 아침의 기도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조아리고  
새해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한번이라도 나아난 사람의 행복을 위해  
꿇어앉아 기도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시냇물처럼 모여들어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평화의 강이 되어 출렁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뉘우치게 하소서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목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과  
남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던 불끈 쥔 주먹을 부끄럽게 하소서  
남을 위해 한 번도 기분 좋게 열려본 적이 없는 지갑과  
끼니때마다 흘러 넘쳐 버리던 밥이며 국물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소서  
무심코 내뱉은 침 한 방울, 말 한 마디가 세상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까맣게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하소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무례와 무지와 무관심을  
새해에는 부디 뉘우치게 하소서

안도현 시인 '새해 아침의 기도' 中

## 강원도에 꽃피는 봄은 오는가?

### 골프장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원도

지난해 12월 강원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 건설현황은 총 83개소로 이 중 49개소가 운영 중이며 건설 중인 곳 23개소,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인 곳이 11개소이다. 특히,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은 80만평에 달하는 여의도의 18배 면적으로 국내에서 경기권 다음으로 많다. 강원지역에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게 된 이유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진데다가 MB정부의 골프장 조성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강원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청정자연인데 많은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난개발로 인해 수십 년 자란 나무들이 잘리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원도 일대 지역주민들은 한파 속에서도 50여 일 가까이 강원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기거하면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 지역 8개 마을 주민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두달 여째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 골프장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사업진행 과정 상의 불법성이다. 골프장 개발절차에 따른 검토와 준비, 계획수립, 인가 및 승인, 허가에 이르는 과정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골프장 사업자 간의 결탁과 로비로 인해 허위 문서작성, 검토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골프장 건설에 장애가 되는 항목은 법



《홍천 동막리 골프장 예정지 장락산 일대》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을 무단으로 벌목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건설에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업진행 과정 상의 불법성은 결국 자연생태계 파괴 문제로 이어진다. 인허가 단계에서 골프장 사업자 중심의 허위로 작성된 사전환경성 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골프장 건설 허가를 따내기 위해 골프장 예정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시키고 있다. 홍천 구만리 엠나인 골프장 건설의 경우, 사업 지역 내 담비(멸종위기종2급),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산작약(멸종위기종2급), 독종개(멸종위기종2급) 등의 서식 사실이 사전환경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보전·보호대책 미이행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지난해 9월부터 동식물정밀조사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한 생태계 재조사 중이다.

입목축적조사도 마찬가지로 경우이다. 입목축적이란 산림관리법에 근거하여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 대상 산지가 개발 가능지역인지를 판단하는 규정'이다. 기준을 초과하면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작성된 산림조사서로 인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에 따른 벌목이 가능하도록 허위로 작성되고 있다. 홍천

동막리와 구만리, 원주 구학리 등은 입목축적 조사서에 나무의 크기, 수량 등을 축소하거나 표준지 선정을 부적절하게 선정하는 등 축소, 조작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홍천 동막리의 경우, 군청 공무원이 초기 업체조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위와 공동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조작하여 허위 제출한 것이 지난해 3월에 발각되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행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은 영리기업인 골프장을 기반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사업자가 토지를 80% 이상 매입하면 토지매수를 거부한 나머지 20%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골프장 토지매입과정의 강제수용으로 인해 수백년 간 살아온 삶의 터를 빼앗기고 조상들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토지강제수용은 위헌으로 판결되기는 했으나 2012년 12월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이 밖에도 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 친환경농업인증 취소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골프장 건설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진 주민 간 갈등과 불화는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홍천 구만리의 경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동네 노

인들에게 천만원 씩 현금을 돌린 사실이 주민들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이웃사촌으로 살갑게 지내오던 마을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야기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다.

### 해결방법은 없는가?

홍천 구만리의 경우, 마을주민들은 7년째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7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골프장 건설 문제, 과연 해결책은 없는가? 해당 지역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골프장 건설 진척이 얼마가 되었든, 각 사업시행 단계별 보고서가 얼마나 제출되었건 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골프장 건설에 대한 기존의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늘상 아침이면 동네 뒷산에 올라 마을을 살펴보시던 홍천 동막리 김기억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골프장 사업주가 산에 오르는 길을 막아버린 것에 분통이 터져 노숙농성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지사와의 면담에서도 골프장 건설 문제가 옳은 일이면 하고 잘못된 일이면 취소하라는 말 씀만 하셨다고 한다. 김할아버지의 문제해결에 대한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기면 옳은 일이 되고 지면 잘못된 일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숙농성 중인 강원도골프장 범도민대책위원회의 박성을 집행위원장과 마을 주민들은 결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다고 말한다.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려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우리 세대에 이기지 못하면 내 자식, 내 손자 세대에서도 꼭 이겨낼 것이라고 한다. 강원도는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대대손손 살아온 고향마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소박하지만 결연한 의지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희 회원기자



## 출렁다리에 묶인 소나무들 - 산막이 옛길

충북 괴산군의 '산막이 옛길'은 이미 전국의 명소가 되었다. 산골마을에 연간 100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는 바람을 일으킨 곳이다. 예전에는 아주 산 깊은 마을로 주민들이 장날이나 돼야 오르내리던 산길이었다. 6.25전쟁 직후 1957년 초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는 최초로 건설된 댐이 '괴산댐'이며 수몰지역 사람들이 산기슭으로 다시 자리를 잡고 새로 생겨난 호숫가를 끼고 자연스럽게 생겨난 실죽기 같은 마을사람들의 유일한 통로였다.

그 길을 최근,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으며,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산막이 옛길'로 복원하여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호수와 산자락이 잘 어우러진 풍광과 더불어 솔향기를 느끼게 한다. 4Km의 옛길 구간을 대부분 나무받침(데크)으로 연결해서 편하기도 하지만 곳곳에 이런저런 얽혀진 옛이야기들이 발걸음을 붙잡는다. 이를테면 고인돌 쉼터, 남녀의 사랑이 애똥한 정사목, 연리지, 입구의 소나무동산과 출렁다리, 노루샘, 연화담, 망세루, 앉은뱅이약수, 고공전망대, 옷벗은 미녀 참나무, 호수 전망대 등 기자가 찾아가간 지난 11월 하순에도 적지 않은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이름 모를 무덤에도 어린 참나무 잎새가 붉게 꽃단장을 해 주변 모든 것들이 눈길을 끈다.



출렁다리는 즉각 철거해야...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었다. 산막이 옛길 입구의 과수원을 지나 언덕을 오르면 소나무동산이 있다. 이 숲을 가로질러 세워놓은 '출렁다리'는 잘못된 것으로 즉각 철거해야 마땅하다. 약 50여 미터의 출렁거리는 나무받침의 다리를 지지하는 받침은 주변의 소나무에 붙들어

매고 목과 허리를 죄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두 그루도 아니고 전 구간에 이리저리 흉물스럽게 짝이 없다. 아무리 방문객을 위한 호기심과 오락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리라지만 친환경공법으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했다고 하는 해당 군청의 홍보물을 무색하게 했다.

소나무 숲길은 호숫가를 끼고 아주 자연

스럽게 푸르름과 솔향기를 맡을 수 있는 편안함을 출렁다리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소음이 소나무의 신음소리처럼 들렸다. 하루 빨리 철거해서 산막이옛길 그대로의 발걸음으로 남겨지길 바란다.

임홍순 회원기자  
yimhs001@paran.com

## 산림청의 2012년 주요이슈를 살펴보면...

작년 회원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뜨거웠던 숲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숲생태계도 점점 뜨거워지고, 숲관련 이야기도 뜨거워지는 201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회원여러분의 머리와 가슴도 열 받아 뜨거워지셨다구요? 이야기들만 뜨겁고 우리 숲, 회원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은 시원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2012년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 숲이슈들을 소개합니다.

### 산림치유서비스

산림치유서비스는 산림이 인간에게 주는 이익을 유익하게 활용하여 인간이 산림으로부터 치유를 받도록 국가나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한국산업은행(은행장 강만수)과 손잡고 산림치유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산림치유 공간을 더 넓히는 한편, 이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산림치유를 위한 공간을, 산업은행은 금융 서비스 및 자문 등을 각각 제공해 산림치유 관련 사업 활성화에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로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산림자원과 의학을 접목하는 통합 의료적 산림치유 활성화 전략, 산림자원을 활용한 의료적 맞춤 운동, 정신과 질환자의 산림 내 통합 의료적 치료와



관리, 산림치유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산 전략 및 개발, 치유의 숲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있습니다.

### 생태하천

숲가꾸기 산물인 잣나무와 낙엽송 간벌재를 이용해 강둑을 꾸민 생태하천이 국내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도 화천군은 최근 한강 지천인 화천천에 국산 간벌재를 이용해 높이 2m, 폭 6m, 길이 150m의 하상방틀과 호안방틀 구조물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간벌재를 이용해 생태하천을 만들면 숲가꾸기 산물을 현장

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돼 숲가꾸기 현장 인근 다른 하천으로도 이 공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황원중 박사는 "화천천 하상방틀과 호안방틀은 숲가꾸기 산물을 산업적으로 이용한 모범사례"라며 "이곳은 친환경 하천살리기 건설기술을 검증하고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전시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동북아 DLDD 네트워크

산림청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의 후속사업으로 중국 및 몽골과 동

북아 황사·사막화 방지를 위한 '동북아 DLDD(사막화·토지황폐화·가뭄) 네트워크' 개편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한국이 창원총회에서 사막화방지협약의 실천을 위해 추진 중인 창원이니셔티브의 후속사업인 동북아 황사방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동북아 DLDD 네트워크는 지난 2007년 만들어진 동북아산림네트워크의 개편안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중국 몽골 일본(옵저버로 참여) 및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아시아지역사무소(UNCCD ARCU)가 참여합니다. 각 회원국은 그동안 세 차례 네트워크 회의를 열어 산림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현황, 연구결과 등을 공유해 왔습니다. 네트워크 설립을 주도한 한국은 확대된 네트워크를 NGO 및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제로 사막화를 막을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이미 중국과 몽골에서 조림활동을 펼쳐왔고 2012년부터 5년간 중국과 몽골 접경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본 러시아 북한에 UNEP(유엔환경계획) UNDP(유엔개발계획) 등의 국제기구 참여를 유도해 지역 내 황사 및 토지황폐화 피해국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명 회원기자  
(자료참조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03

백두야, 숲에 가자 ③

## 추풍령에서 작점고개까지



© 우상권

이번호부터 모니터링이 시작 된다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추풍령에서부터 시작 할 것이다. 먼저 추풍령은 우리나라에서 국도, 고속도로, 철도가 한곳에서 만나는 유일한 곳이다. 근대화의 물결에 추풍령 자체도 많이 훼손이 되었지만 첫 모니터링에서 가슴이 아픈 것은 추풍령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고도400m지점의 금산 정상부의 한쪽 면이 거의 전부 절개가 되어 보기 흉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아마 채석채취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보나 너무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는 경관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산사태 붕괴의 위험과 생태계 역시 파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절개지를 절망으로 덮어 임시로 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 시급히 복원이 요구되는 곳이다.



© 우상권

무연고 묘지는 과거에는 위의 세 번째 사진과 같이 묘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 것 같은 추측을 해보지만, 망자가족들의 오랜 세월 무관심으로 묘지 주변에 여러 종의 나무가 자연히 자라면서 자연으로 복원중임

을 볼 수가 있다. 아마도 본인의 생각으로 백두대간에 산재되어 있는 거의 모든 묘지는 위사진과 같이 먼 훗날을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우상권

고도433m지점에서는 기도터 비슷한 가건물이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었다. 종교인들, 또는 무속인 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종교인, 무속인 들이 자연을 파괴 하면서 까지 숭배를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마쳤으면 당연히 철거까지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 했다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떠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지자체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즉시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고도273m지점의 과수원은 너무 광범위하여 백두대간이 크게 훼손이 되었고 또한 비닐하우스역시 경관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우상권

위와 같이 대단위 농장은 행정적인 서류를 확인 해보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대부분이 사유지일 걸로 생각이 든다. 이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지 매입에 신경을 써서 원상회복에 힘을 써야 할 것 같다.



© 우상권

백두대간 종주능선상의 많은 등산객들의 길 안내를 위하여 표시를 해놓는 것은 어느 정도 애교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업적인 각 산악회의 안내 리본은 자연 경관과 생태계를 파괴 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백두대간을 종교적, 상업적, 개인의 묘지 등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다.

우상권 회원기자

생명의숲 후원의 밤

## “우리, 더불어 숲”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그런데도 생명의숲에 이렇게 참여 할 수 있으니 참 좋지요.” (이병하 회원)

“추운 날인데도 이렇게 후원의 밤에 사람이 가득하니 감명 받았습니다. 활동가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회원)

“무대에 서니 떨렸지만 매우 좋았어요.” (동명아동복지센터 박예진, 배수현 양)

지난해 말 생명의숲 후원의 밤에 참석하신 회원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왔다. 12월 7일 저녁 7시 서강대학교 내 공자가 컨벤션에서 열린 후원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또 뜨거웠다. 추운 저녁을 확

실히 달군 그날의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성큼성큼. 대학생들로 가득한 서강대 공자가 컨벤션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보니 환영 현수막이 펼쳐져 있다. “우리, 더불어 숲, 2011년 생명의숲 후원의 밤.” 그 앞에는 활동가들이 참여 회원들의 이름표를 배부하고 있고 올해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숲들의 소개판이 이젤위에 올라

와 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니 뜨악! 잡지에서나 보았던 만찬식 테이블들이 세팅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고급스럽다. ‘와우! 여기가 바로 올해 생명의숲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리는 곳이구나.’ 갑자기 배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긴장이 팍 된다.

김태영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김후란 이사장, 최규복 생명의숲 이사(유한김벌리 사장), 문국현 前 생명의숲 공동대표, 박종호 산림청 국장의 환영 말씀에 이어 관악산 숲가꿈이 문영규 회원과 동명아동복지센터 김연희 사무국장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문화교육위원회 현승엽 위원께서 아주 멋진 목소리로 팝송 ‘My way’를 불러주셨고 동명아동복지센터의 아이들이 ‘사랑의 트위스트’ 노래를 배경으로 귀여운 율동을 선보였다.

음악으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 후원의 밤 행사는 만찬과 함께 오랜만에 참석하신 여러 회원들과 후원기관들의 짧은 응원말로 끝을 맺었다. 중간 중간에 2011 생명의숲 활동영상과 회원들의 인터뷰 영상도 분위기 업그레이드에 한 역할 했다.

2011년을 멋지게 마무리한 생명의숲, 올해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숲을 가꾸고 보전할 생명의숲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기대하시라, 2012 생명의숲!

박서영 회원기자

추천! 미디어의 숲

# 동네숲은 깊다

(강우근/철수와영희/13,000/2011년 11월 25일/192쪽/신국판)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자연놀이책이다. 요즘 아이들은 놀 줄을 모른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런데 아이들은 놀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놀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놀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호시탐탐 놀 기회를 노리는 아이들은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잘 놀다.

정작 놀 줄을 모르는 사람은 요즘 어른들이다. 어른 스스로 즐기기 위한 놀이가 필요하다.

텃밭에서 놀고, 동네 숲과 골목길을 걸으며 놀고, 수다 떨면서 놀자. 동네 구석구석 틈새와 버려진 곳을 놀이터로 만들면서 놀아 보자.

저자는 뭐든지 커야지 대접받고 작고 소



박한 것이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걸음을 멈추고 키를 낮춘 상태에서 작은 것을 들여다보아야 주변의 자연이 보인다고 한다.

저자는 자연을 관찰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온몸으로 느낀다. 숲에 가면 아이들한테 잠깐이라도 눈을 감아 보게 한다. 눈을 감으면 눈

에 눌러 있던 다른 감각이 슬금슬금 깨어난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눈보다 코가 먼저 알아챈다. 축축한 흙냄새, 나뭇잎 썩는 냄새, 그 속에 섞인 싱그러움 냄새, 또 비릿한 생명의 냄새. 그 다음, 계절 변화를 느끼는

것은 귀다. 짝을 부르는 새들의 노래가 잠든 숲을 깨운다. 촉각도 서서히 살아나서 바람결에 스미어 있는 물기를 감지해 낸다.

저자는 자신이 동네에서 보고 느낀 자연의 변화를 보고 느낀 그대로 쓰고 그려서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일상에 숨겨진 자연과 생태를 다음과 같이 사계절 곳곳에서 찾아낸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 도시가 품은 텃밭에 눈독을 들인다. 그 밭은 비록 작지만 거기서는 함께 놀면서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다. 텃밭은 내일로 나 있는 작은 오솔길이다.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여름밤 숲 속은 또 다른 세상이다. 숲 속 벌레들은 또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는 안내자다. 여름밤 동네 숲으로 떠나는 탐험은 가깝지만 아주 멀고 색다른 여행이 될 수 있다.

가을과 겨울 사이의 숲 속은 벌레들의 음악회가 펼쳐진다. 사람들은 계절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간다. 예술은 점점 멀어져만 간다. 삶과 멀어진 예술은 그

저 상품으로 소비될 따름이다.

겨울과 봄이 오기 전, 겨울눈을 들여다본다. 눈비가 조각에 싸인 겨울눈 안에서 봄에 자라날 새 잎과 꽃, 새 가지가 잠자고 있다. 루페로 자세히 보면 겨울눈에 작은 알들이 붙어 있다. 나뭇가지 끝마다 수천수만 꿈들이 매달려 있다.

저자는 자연을 만나러 멀리 가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 집 안의 베란다와 형광등 덮개 속에서도 생명을 찾고, 집 안팎과 매일 오가는 길, 버려진 귀퉁이 땅, 심지어는 하수구 같은 개울, 아파트 경비실 지붕, 화단, 아파트 뒤쪽의 작은 숲, 그리고 텃밭에서 자연을 찾는다.

저자가 동네에서 쉽게 만난 동식물은 300종이 넘는다. 이 책을 보면 집 안과 동네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구나, 열두 달 사시사철 언제 어디서나 자연과 생명을 만날 수 있구나 하며 내 사는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게 할 것이다.

양종운 회원



## 겨울 날씨의 득해도 우리 마음은 녹여요

날씨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일까? 비슷한 형태인 마음씨나 글씨, 말씨 같은 말들을 보자. 마음씨는 마음을 쓰는 태도이고, 글씨는 쓴 글자의 모양, 말씨는 말하는 태도나 버릇을 말한다. 이와 같이 뒷가지 '-씨'는 태도나 모양을 뜻하는데, 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옮겨 놓는 모습을 가르키는 발씨, 바람이 불어오는 모양을 뜻하는 바람씨 같은 말들도 같은 뒷가지 '-씨'가 붙어서 된 말이다. 날씨도 마찬가지다. 비, 구름, 바람, 기온 같은 것들로 그날그날이 보여 주는 표정이나 태도가 바로 날씨이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독하다'고 하고, 찌는 듯이 더워지면 '물컹다'고 한다. '찌물컹다'는 말은 날씨가 찌고 물컹다는 뜻이다. 한창 심한 추위나 더위를 한 추위, 한더위라고 하는데, 득할 때의 추위가 한추위, 물컹 때의 더위가 한더위라고 할 수 있다. '늑다'라는 말은 출던 날씨가 녹져 푸근하다는 뜻의 그림씨, 또는 그렇게 된다, 즉 녹진다는 뜻의 움직씨로도 쓰인다.

봄별에는 흔히 '따사롭다'는 그림씨가 따라붙는다. '따사롭다'는 좀 따뜻한 듯하다는 뜻인데, 이보다 어감이 여린 말이 '다사롭다'이다. '다사롭다'와 비슷한 말이 '다사하다', 이보다 큰말이 '다스하다', '다스하다'의 큰말이 '드스하다'이다. 또 '다습다', '드습다', '따습다', '따습다', '뜨습다', '따뜻하다', '뜨뜻하다', '따뜻하다', '뜨뜻하다' 등으로

셈과 여림에 따라 풍부한 변주를 보여 준다. '따뜻하다'는 의미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지만 말들이 주는 느낌과 표정을 살려 그때 그때 가장 알맞은 말을 골라 쓸 수 있다면 우리의 감정과 정서도 그만큼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겨울 날씨가 꽤 따뜻할 때는 '푹하다'는 표현을 쓴다. '아늑하다', '으늑하다'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있다는 뜻이다. '웅신하다'는 은근히 더울 때, '후텋다'나 '훗훗하다'는 답답할 정도로 훈훈하게 더울 때를 나타내는 말이다. 불쾌하고 끈끈하고 무더울 때는 '후텋지근하다', '후터분하다'고 한다.

'상크림하다'는 서늘한 바람기가 있어 좀 선선하다는 뜻이고, '성크림하다'가 큰말이다. 서늘한 기운이 있어서 조금 추운 듯할 때는 '살랑하다'고 한다. '살랑하다'의 큰말이 '설렁하다', '설렁하다'의 큰말이 '설렁하다'라는 말이다. 날씨가 몹시 추울 때는 '맵다'고 한다. 추위가 약오른 고추처럼 독하게 맵다는 뜻이다. 매운 맛은 차갑기는 커녕 뜨거운 맛인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날씨가 아주 추워지면 차갑다기 보다는 뜨겁게 느껴지는 이치가 '맵다'는 말 속에 담겨 있다. '맵차다'는 바람이 매섭게 사납다, '맵차다'는 맵고도 차다는 뜻이다.

인용 및 참조 : 도시리와 말모이, 우리말의 모든 것(하늘연못)

양종운 회원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숲과 사람들>을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 재미있게 풀어보시고 정답을 생명의숲 홈페이지 <숲과사람들 초록퍼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①	⑥		
② ⑦		⑧				⑩
				③		
		④	⑨			
			⑤			

### 가로 열쇠

- ① 지리산에서는 이 나무를 '대학나무'라 일컫지요.
- ② 어린 식물을 옮겨 심을 때에 사용하는, 흙손만 한 작은 삽
- ③ 겨울잠을 깰 때 먹으려고 도토리를 많이 모아두지요.
- ④ 일손이 간간하지 못하고 건성건성 하는 모양을 '000 돌다리 건너듯' 한다고 하지요.
- 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쌀밥에 한이 맺힌 며느리의 이야기가 담긴 전설의 나무

### 세로 열쇠

- ⑥ 첫사랑의 쓴맛을 이 나무에서 느낄 수 있지요.
- ⑦ 한겨울에도 달그락거리며 붙어있는 파리 모양의 열매가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 나무
- ⑧ 천연기념물 368호로 귀신 쫓는 개로 용감하고 당당하며 충성심이 강한 개
- ⑨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으로 굴업도에 상당히 많은 개체가 확인되고 있다.
- ⑩ 팔쥐의 언니

\*정답 힌트 : ②의 첫 글자와 ⑤의 첫 글자 조합은?

지난호 정답 - 오지

지난호 정답자 - 김효신, 이혜지 회원님

출제 안민자 회원

## 숲과 건강한 삶 - 숲과사람들

- 생명의숲 회원들이 만들어 가는 '숲과 사람들(Forest & People)'의 내용은 글쓴이의 자유로운 생각을 담은 것으로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 표방하는 정책 및 활동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숲과 사람들(Forest & People)'에 수록된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 바닷가 절벽에는 바위솔이 산다

바위솔은 이름만큼이나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사는 곳 또한 바위의 틈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위솔은 햇빛을 좋아하고 건조하며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산다.

바위솔을 다른 이름으로 와송(瓦松)이라고도 하는데 한옥의 기와지붕에 터를 잡고 사는 모습에서 유래되었고 우리말로 옮기면서 바위솔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생김새가 독특하지만 볼품없는 바위솔이 가을이 되면 앙증스러운 꽃을 피운다. 특히 남쪽의 바닷가 절벽에 사는 바위솔은 다른 식물들의 꽃이 사라질 무렵인 늦가을까지 꽃을 피워 월동준비를 위해 꿀을 따기에 바쁜 벌과 나비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도 한다.



©이병함

바위솔은 예로부터 약용식물로 이용되었다. 해열이나 소종에 효능이 있어 간염 등의 악성종양에 처방하였으며 민간요법으로도 널리 이용되었다. 근래에는 각종 암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개체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량으로 재배하기도 한다. 그래서 바위솔은 사람들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바위에 터를 잡기 시작하였으며 살아남기 위하여 척박

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진화하였을 것이다. 바위솔은 그냥 바위에 얹어져 있을 정도로 뿌리가 대단히 부실하다. 비가 오면 한 번에 물기를 흠뻑 머금었다가 몇 개월이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다육식물이 되었으며 터를 잡은 땅에서 뿌리를 박고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아도 햇빛만 충분히 비치면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를 거듭하였다.

바위솔은 돌나물과 식물로 종류가 다양하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바위솔이 무려 16종이나 등재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하는 바위솔이 있으며 깊은 산의 암벽에 붙어사는 난쟁이바위솔, 그리고 둥근바위솔, 가지바위솔 등이 있고 정선바위솔, 진주바위솔과 같이 지역명을 딴 바위솔도 있다. 사진의 바위솔은 바닷가 암벽에 자라며 가지를 많이 치는 특징을 지닌 가지바위솔인가 싶다.

아름다운 야생화를 만나기 위해서는 깊은 산골짜기를 올라야 하는 발품이 필요하지만 바위솔은 위험 부담이 따른다. 기와지붕에 많았던 바위솔도 거의 사라졌고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한 암벽에 가까이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위솔은 암석정원의 소재로 제격이고 초물분재로도 관상 가치가 높다.

바위솔의 육종과 증식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대량재배가 가능해지면 야생의 바위솔이 수난을 당하는 일도 없어 질 것이다. 그리고 바위솔의 성분이 더욱 규명되어 유용한 식물자원이 되면 더 좋은 일이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21세기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의 소재가 되는 자생식물이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병함 회원

##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대표하는 나무”, 소나무

- 소나무과의 늘푸른바늘잎 큰키나무 Pinus densiflora -



©김선웅

‘흔히 볼 수 있지만 쓰임새가 많아 귀한 나무’

추운 겨울 소복이 눈 덮인 겨울 산...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 다른 나무들과 달리 푸른 자태를 잃지 않고 당당히 서있는 소나무를 보고 있으면 옛 선조들의 곧은 뜻과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옛 선비들의 글이나 그림을 보면 소나무가 빠지지 않는 이유도 그 중 하나겠지요. 예로부터 소나무는 기품진 땅이나 척박한 곳을 가리지 않고 전 지역에서 잘 자라는 강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흔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귀한 줄 모르고 하찮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우리 선조들은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잘 자란 소나무는 단단하고 잘 썩지 않으며 목재로 썼을 때 갈라지거나 휘지도 않아서 집을 짓거나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력이 좋고 나무를 태울 때 나는 솔향은 은은히 퍼져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겨울철 빨감으로도 많이 사용하였지요. 그리고 임금님이 사용할 궁궐이나 사찰 같은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땐 줄기가 곧고 모양이 좋은 소나무만을 사용하여 지었습니다. 건축 재료 외에도 주로 농기구나 가구 등 살림살이에도 많이 사용되었지요. 그래서 선조들은

소나무를 매우 귀중하게 여겨 주변에 많이 심도록 하고 보호하기도 했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 나무’

옛날에 하늘나라에 살던 성주 신이 땅에 내려와 정처 없이 떠돌며 세상을 두루 살펴보다가 제비를 보고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를 따라 여기 저기 머물기 시작했는데 제비는 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둥지를 만들었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요. 성주 신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이라도 지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더니, 하늘에서 소나무 씨앗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주 신은 그 씨앗을 산과 들에 골고루 뿌렸지요. 씨앗은 곧 싹을 틔워 나무가 되고 성주 신은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큰 나무가 되기 전까지 베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웬만한 집은 물론이고 사찰이나 궁궐, 임금의 관을 만들 때 쓰는 최고급 목재로도 쓰일 만큼 훌륭하게 컸답니다. 물론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은 짓고도 남았지요. 그렇게 소나무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고마운 나무가 되었고 지금도 성주 신이 자리를 잡은 곳을 ‘제비원’이라고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성주 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성주신(城主神) : 집안의 평안과 부귀를 관장하는 최고의 가택신

김선웅 곤지암수목원

## 알아두면 유용한 숲지식

### 산천어와 열목어이야기

산천어와 송어는 형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연어과 어류에는 열목어, 산천어(송어), 연어 등이 있습니다. 곤돌매기는 북동해안 고성 이북 최상류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천어는 동해안 하천에 사는 종으로 우리나라 토종 송어가 담수에 머물며 육봉화된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학자들도 서로 다른 물고기로 분류, 다른 학명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의 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어 송어 ©김남덕

우리 송어 이름 찾기

산천어와 송어는 같은 종이지만 왜 어떤 놈들은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계곡에 남아 산천어가 되는지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 신비감을 주는 물고기입니다. 하천에서 육봉화된 산천어는

크기가 30cm 정도인데 반해

바다로 내려간 송어는 최대 60cm에 이릅니다. 큰 놈은 큰물에서 논다는 속된말처럼 산천어와 송어의 크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송어하면 사람들은 지난 1960년대 미국, 일본 등지에서 들여온 북미산 무지개송어를 떠올립니다. 토종물고기인 우리 송어는 무지개송어에게 이름을 내준 격이 돼 버렸습니다. 송어는 우리 하천에서 태어나 동해에서 일생을 보낸 후 산란을 위해 다시 우리 하천을 찾아오는 물고기입니다.



열목어 ©김남덕

쥐 잡아 먹는 열목어

열목어는 빙하기 이후 내륙에 고착된 연어과 어류입니다. 전형적인 냉수성 어종으로 국내에서 주로 청정지역인 강원도 영서의 심산유곡에 서식하고 있는 탓으로 일반인에게 신비감을 주는 어류입니다. 열목어는 잘빠진 유선형 몸매를 가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열목어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미인을 만날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식성은 수줍은 미인답지 않습니다. 곤충류뿐만 아니라 쥐까지 잡아먹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의 전형적인 육식성 어류입니다.

수온에 민감한 열목어는 한여름 깊은 소에 은신하거나 상류 고지대로 이동합니다. 산란은 3월에서 5월 정도에 수심 30cm 정도의 유속이 느린 지역을 선택합니다. 열목어는 두 개 지역(정선 정암리 계곡, 대현리계곡)에 지정된 지역천연기념물이며 보호어종입니다. 열목어 관찰을 위해 계곡에 몸을 담가 쫓다보면 머리만 바위틈에 박은 채 숨는 녀석이 있을 정도로 우둔한 구석도 있습니다.



열목어 ©김남덕

산천어 방류에 대한 의견

한때 방류로 인해 영동하천에 산천어 개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방류로 인해 일본산천어인 아마고가 우점종으로 위치하는 등 자연번식에 의존하는 토종산천어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계곡에 어느 정도의 개체수가 적당한가에

대한 사전 조사없이 행해지는 산천어 방류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계곡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태풍루사로 영동지역 하천 생태계도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또 수해복구 과정에서도 하천 생태계를 염두에 두지 않아 그나마 남아있던 수중생물들이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간섭이 사라질 때 자연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다는 점을 하천 복구에 참고했으면 합니다.

김남덕

춘천시청 '봄내' 편집상임위원

생명의숲 회원을 찾아서

- 이지열 회원 -

## 숲에서 찾은 인생 후반전



아이들과 숲 활동하는 이지열 회원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 주름이 웃는 모습으로 나 있는 이지열(59) 회원은 2008년 12월 은퇴하기 전에는 기업체 전산실에서 SI(System Integration)시스템 개발 및 구축하는 일을 했으며 현재 생명의숲 회원이며 숲자라미에서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아이처럼 밝고 천진한 표정을 가져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았다. 아이들과 숲 체험을 함께 하며 숲해설가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지열 회원을 만나 보았다.

### 오늘도 숲 활동하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주목나무와 잣나무를 이용해서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요.

### 어떻게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게 되셨나요?

생태체험교육사업단 숲자라미에서 숲해설을 하고 있어요. 숲자라미는 은퇴 후 숲해설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생태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7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가를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도 가고 초등학교생들과 숲 체험도 하지요.

###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이 이야기를 하면 길어요. 2008년 2월말 은퇴를 했는데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했던 일이 전산 시스템 일이니 그 분야 일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 젊은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년 마치고 나온 것도 다행인 분위기죠. 부동산 중개가 좋을 것 같아 퇴직 2년 전부터 준비해서 2008년 10월에 공인중개사를 땀쫓았죠.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 나 같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투명성이 없어 보이고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업무에 적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하고 싶은 것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았죠. 만지고 조작하는 일을 좋아하니까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재미있었어요.

### 숲해설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그 무렵 안성에 텃밭이 있는데 그 밭에 채소 키우느라 일주일에 이들은 갔죠. 누가 조언을 하기를 그 밭을 그렇게 놀리지 말고 묘목을 심으면 손 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묘목 1,000주를 심었는데 그냥 심어 두면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는 방법부터 틀린 것 같고 거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조경기능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가지치기, 심기를 배우고 실전에 적용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무를 너무 뻑뻑하게 심었던군요. 그걸 옮겨 심으려니 포크레인 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포크레인을 배웠죠. 중장비 굴삭기 운전 자격증도 있습니다.

포크레인자격증 따고 농사꾼으로 살려고 했어요. 자연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것 같아 인터넷 검색하다가 숲생태지도자협의회에서 숲과 자연에 대해 가르쳐 주는 숲해설가 교육이 있다 하기에 지원했어요. 무료교육인데 타이밍도 잘 맞았죠. 모두 숲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이어서 나는 안될 줄 알았는데 합격통보가 와서 좋았어요. 무려 4:1의

경쟁을 뚫고 된 거예요.

이지열님은 이 밖에도 경운기관리운전, 실내건축시공, AUTO CAD, 부동산경매투자과정, 인터넷 홈쇼핑 구축 과정도 공부하셨음을 살짝 알려주었다. 이 모든 것을 퇴직 후 배우셨다니 탐구심과 열정의 비결이 궁금해졌다.

###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해냈고 그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부하는 요령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은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하하하. 퇴직하고 줄곧 공부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려면 쉬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면에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일을 하면 재미있고 즐거울까?' 하는 고민이 있었죠.

제일 힘들었던 게 공인중개사인데 괜히 시작했나 싶었죠. 이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목공도 재미있었는데 숲해설가가 장 재미있어요. 숲을 이루는 나무, 풀 등 자연에 대해 알아가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 생명의숲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나요?

숲해설가 교육을 마치고 숲자라미에서 활동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었어요. 이쪽 분야 자원봉사 할 기회를 찾다가 생명의숲 사무처에서 사무 업무를 도와주는 봉사를 하게 되어 그것이 계기가 되었죠.

### 앞으로 숲, 환경분야에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숲해설가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죠. 지속적으로 교육도 받고 그것을 현장에 접목시켜서 나중에는 나만의 특색 있는 수업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공부해야죠. 개인적으로 3년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숲을 배우기 시작했으니 3년은 공부해야죠. 봄의 새싹, 여름의 성장, 가을의 열매, 겨울의 동면 사이클을 세 번은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 생명의숲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생명의숲 활동 중에서 나무심기, 나무 관리, 숲 지키기가 마음에 들어요.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어요. 좋은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월 전 MBC스페셜에서 은퇴 후 인생 후반전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룬 인생2모작이 생각났다. 인생2모작을 위한 팁도 소개했는데 첫째, 무조건 일하라. 둘째,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셋째, 남은 인생 사회에 환원하자였다. 이지열 회원도 이 세 가지 팁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분명 성공하는 인생2모작이 되리라 확신한다.

interviewer 류춘희 회원기자

## 생명의숲 제2기 회원기자학교를 개교합니다!

생명의숲 회원님들로 구성된 '풀잎소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숲과 사람들> 생명의숲의 다양한 활동소식은 물론, 숲이 아름다운 곳, 숲이 아파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숲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오는 생생한 현장취재까지! 누구나 우리 사회의 '풀잎소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숲을 통한 작지만 강한 울림을 함께 만들어 갈 제2기 회원기자학교를 개교합니다.

- 일시 : 2012년 2월 중
- 내용 : 환경일기, 글쓰기, 사진촬영, 편집기술, 현장탐방 등 기자활동에 필요한 교육 전반
- 대상 : 생명의숲 정회원 25명
- 문의 : 생명의숲 커뮤니케이션실 손정아 활동가(전화.02-499-6198)

\* 세부일정 및 커리큘럼은 추후 생명의숲 홈페이지(www.forest.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숲과 건강한 삶 - 숲과사람들



\* 이번 호를 끝으로 정중훈님의 한컷에세이는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생태교란식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귀화식물(naturalized plants, exotic plants)이란 원래 국내에 자생하지 않았던 국내로 유입된 외래식물이 국내의 자연 환경에 적응하여 인간의 도움 없이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하면서 살아가는 식물을 말하며, 야생화식물이나 이주식물이라고도 한다.

귀화식물은 국내외로 사람의 여행 및 가축과 물자의 수출입이 많은 지역 즉, 공항(비행장), 항구(선박), 역(기차), 각종 시험장, 목장, 종축장, 식물원, 도로공사 절개지 등으로 유입되고, 고위 식생이 파괴되어 경쟁이 없거나 적은 지역과 척박한 지역에 귀화한다. 그리고 점차 주변으로 전파하고 농경지까지 침투하여 농경지의 잡초가 되고 꽃가루 알레르기 등 피해를 준다. 돼지풀, 단풍잎돼지풀은 미국 물자에 붙어 들어와 경기지역의 미군부대 주변에 정착하였다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유해식물이고 도깨비가지는 목초 씨앗에 섞여 제주도, 마산 등 목장에 정착하였다가 확산되었다.

한국의 귀화식물은 1898년 J. W. Pallibin의 *Conspectus florum Koreae*에 최초로 보고되었다. 개항 이전 16종에 불과하던 종이 1980년에 110종, 1995년에 182종, 2000년에 224종으로 조사되었고, 현재 약 300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귀화식물의 특징은 대부분 한해살이풀이고, 급속한 성장, 빠른 생식성장, 연속적이고 많은 종자 생산력, 광범위한 환경 내성, 높은 종자 발아율, 종자의 긴 수명, 자가화합성 등을 가진 것이다.

귀화식물은 사람에게 꽃가루병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병을 유발하고, 화학물질을 유출하거나 다른 식물을 감는 등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생물의 종다양성을 감소시키며, 자생 공간의 부족을 유발한다. 그리고 미국

자리공과 독말풀 등은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중독의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병충해의 기주식물로서 솔잎혹파리, 밤나무혹벌, 소나무재선충 등을 유입시킬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특징 때문에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식물 11종을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11종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 수변 생태계를 교란하는 물참새피과 털물참새피, 산림 생태계를 교란하는 서양등골나물, 억센 가시와 독성을 가진 도깨비가지, 강한 번식력으로 토종을 도태시키는 서양금초초와 양미역취, 하천 식생을 점령하는 미국쑥부쟁이, 주변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는 가시박, 목장 생태계를 점령하는 애기수영이다.

이런 외래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식물을 도입할 때 도입 뒤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공항과 항구에서 검역 제도를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무분별한 도입을 막고, 도입 후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 정부에서 귀화식물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넷째, 생물학적 방법으로 천적이나 경쟁종을 이용하거나 유해귀화식물을 인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외래식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첫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 피해 유발 식물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는 꽃가루병 발생지역에 외출자제, 외출 시 마스크 등을 착용, 가급적 피부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고, 외출 후에는 샤워를 하여 몸에 묻은 꽃가루를 제거하며, 꽃가루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셋째는 꽃가루알레르기의 발생은 대기오염 물질과 결합하여 강력한 항원성을 가지므로 대기오염의 개선 대책과 병행하여 시행해야 한다.

정우규 (울산생명의숲 공동대표, 이학박사)

## 숲조성 시대에서 숲문화 교육시대로...



생명의숲은 1998년 숲가꾸기를 시작으로 학교숲 운동, 생활권 숲길 운동, 전통마을숲 운동, 사회복지시설 숲가꾸기에 이르기 까지 숲의 면적을 넓히고 건강한 숲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학교숲, 생활권 숲길 조성이 활성화되었다.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성한 울창한 숲과 최근 확대된 생활권 숲 조성을 기반으로 숲의 문화 교육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실시 등과 함께 '삶의 질'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면서 숲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을 2013년에는 초·중·고 전학년에게 적용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숲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원활동이 의무화되면서 숲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왔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전개하던 숲교육 프로그램도 생명의숲에서 진행한 'IG와 함께 하는 청소년 숲교실'처럼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 지고 있고, 숲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급성장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숲을 대상으로 한 임직원 자원활동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생명의숲 활동도 변화발전하고 있다. 그동안 1005여개 학교숲을 조성해온 학교숲운

동도 올해부터는 학교숲 관리 및 교육적 활용 측면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관악산 숲가꾸기도 독립 단체로 더 탄력하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세계평화의숲도 조성하고 함께 활용 프로그램의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작년 한해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활동한 흥릉숲 지킴이 자원활동도 더 체계를 갖추어 숲을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 숲가꾸기 활동은 더욱 강화되었으면 한다. 단순히 숲을 조성해 주는 활동이 아닌 복지시설 아이들과 숲을 가꾸고 텃밭을 가꾸는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숲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생명의숲(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질적인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 각 개별 영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취합하고 정리하고 평가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국생명의숲 및 각 영역별 숲(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공유되고 개발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생명의숲운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생명의숲 활동도 숲이 품고 있는 문화 교육적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고민하고 활동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정용숙 (생명의숲 교육사업국장)

### 숲지킴이의 말

## '숲과 사람들', 참여의 숲을 넓히며...

새해는 용(龍)의 해입니다. 예부터 용(龍)은 상서로운 동물로 우리 문화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상상의 동물로 몸은 거대한 뱀과 비슷하데 비늘과 네 발을 가지고 있고 뽕은 사슴, 귀는 소에 가까우며, 깊은 연못이나 늪, 호수, 바다 등 물 속에서 살며 때로는 하늘로 올라가 풍운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기린·봉황·거북과 함께 사령(四靈)의 하나로서 천자에 견주며, 인도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2띠 중 다섯 번째로 용띠생(진년생, 辰年生)들은 운기가 세고 크게 생각하며 행동하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일단 어떤 일에 매달리면 끝까지 일을 관철시키는 돌파력과 결단력이 강하다고도 합니다.

새해에는 국가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큰 일들이 겹쳐진 격동의 한 해가 될 듯 싶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혜롭게 용기를 펼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숲은 1998년 창립 이래 꾸준히 펼쳐온 '숲가꾸기운동'을 시작으로 숲문화운동, 도시숲운동, 농·산촌 보전운동 등 전국에 9천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숲 전문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이 가운데 회원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 만드는 회원신문 '숲과 사람들'(Forest & People)은 격월지로서 지난 2009년 7월 1일 창간되어 2년여 동안 나무와 숲을 사랑하는 회원들 간에 소통의 광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숲과 사람들'의 제작은 현재 회원기자단, 콘텐츠팀과 디자인팀으로 이루어진 '풀잎소리'라고 하는 회원활동 모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기자단은 전국 곳곳의 자연생태 현장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회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전하고자 하는 남다른 소임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숲해설가, 디자이너,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으며 새해에는 더 큰 역할을 한데 모아 회원들께 찾아뵙고자 합니다.

다만, 회원기자들이 매월 편집기획회의를 통해 자체적인 피드백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회원들의 날 선 지적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회원신문답게 많은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등 직접 참여로써 '숲과 사람들'이 꾸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생명의숲'이 숲 공동체의 가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8면에서 16면으로 변화의 기대를 강하게 가져봅니다. 그럼으로써 신문을 통한 회원들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고 회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목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회원신문 '숲과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숲이 더욱 확장될 수 있는 '우거진 숲'이 되기를 모든 회원들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순 회원기자단 단장



# 숲의 도시로 불리고 싶어요!



대전둘레산길잇기



월평공원숲사랑지도



테마산행



창립총회

### ● 대전충남생명의숲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전충남생명의숲은 생명의숲이란 이름처럼 생명과도 같은 우리 지역의 숲을 지키기 위해, 가꿀 곳은 가꾸고, 부족한 곳은 함께 만들어 나누고자하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9년 4월 27일에 창립하였고, 다른 지역 생명의숲처럼 숲가꾸기 활동들로 시작해 현재는 모빌학교숲운동, 도시숲운동, 숲교육운동, 연대활동 등 지역에서 숲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전사무처 활동가는 총 5명인데, 한 명은 육아휴직 중이라 현재는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전국 회원님들께 인사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의 중심, 과학의 도시'란 말보다는 숲의 도시란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대전. 이곳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충남생명의숲에서 인사드려요. '대전에 얼마나 숲이 많기에?'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분지형태인 대전은 숲이 대전 도심을 아늑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고, 그 도심 안에 대전의 3대 하천(대전천, 갑천, 유등천)이 흐르고 있는, 주위를 둘러봐도 숲이 보이는 도시입니다. 도심 곳곳에 공원과도 많고, 한밭수목원이라는 도심 수목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전둘레산길잇기(<http://cafe.daum.net/djsarang>)까지... 숲의 도시라 불려도 되겠죠? 궁금하시면 꼭 한번 찾아주세요! 이렇게 '숲과 사람들'로 여러 회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 ● 2 동안의 활동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항상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9년째 이어오고 있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이름은 '숲사람' 인데요, 흔한 숲사랑이 아니고, 숲사람. 숲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2003년 1기 숲해설가 교육이 시작되면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2011년 7기 교육을 마치면서 더 많은 가족이 생겼답니다. 대전충남생명의숲 활동의 밑거름이 되고 지탱할 수 있는 뿌리 같은 존재랍니다.

대전충남생명의숲 간판프로그램인 어린이생태학교도 2005년부터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숲을 세상에 더 많이 알리자는 뜻을 모아 시작되어, 300명도 채 되지 않던 적은 회원을 700명이 넘는 회원으로 만들게 된 회원확대의 밑거름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숲체험교육들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에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숲체험캠프의 경우 참가자들이 인근 식당에서 어렵게 식사하는 것을 보고 직접 밥 짓고 나서서 2박 3일간 가정을 살짝 버리고 맛있고 안전한 식사를 직접 만들어주세요. 매년 캠프 식사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2005년부터는 캠프의 밥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주는 2박 3일간의 맛있는 밥! 집보다 더 맛있다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 등 숲사람의 전통이자 자랑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적인 활동들을 함께 하는 고마운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숲사람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아찔한 생각도 가끔 해본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도 갖고 있는데요, 산행도 하고 강의도 듣고 맛집 탐방도 하고, 2011년 10월에는 '숲사람문화제'라는 문화공연프로그램도 진행

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되는 대전충남생명의숲의 소모임 숲사람입니다!

자랑거리 다른 한 가지는 대전 사무처의 명물, 보물이라 여기는 바로 일명 지도 9종 세트입니다. 어떤 지도냐구요? 2000년부터 매년 한 곳씩을 정해 지속적으로 지역의 숲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구봉산, 월평공원, 계족산, 남선공원 등 지역의 숲, 대청호물 사랑지도 그리고 대전둘레산길잇기지도까지. 요즘 흔한 지도가 아닌 식생조사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대동여지도의 김정호가 된 듯 회원들과 직접 조사하고 만들어낸 숲 사랑지도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 바로 품절되어 2쇄를 했던 지도도 있고, 오래전 제작한 지도라 많이 바뀌어 버린 곳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사랑받고 있는 지도입니다.

### ●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 해주세요.

어려운 점보다는 아쉬운 점이 더 많아요. 시민단체에 시민이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초창기에는 관심도, 참여도도 높았던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이 시간이 지나다보니 참여율도 적어지고 침체기인 것들이 많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시대에 맞게 변화되지 못하고 회원들의 또 다른 욕구들을 채워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많아요. 앞으로는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숲사람 소모임 외에는 딱히 관심 있는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이 없는 상태인데, 2012년에는 또 다른 작은 소모임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회원은 모두 몇 분인지요?

현재 710명의 든든한 회원님이 생명의숲 활동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앞으로 더 많은 회원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2012년 새해 인사를 해주신다면?

생명의숲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회원님! 2012년 임진년 용띠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더구나 흑룡띠해라고 하네요. 2012년에는 회원님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비상하는 용처럼 희망을 안고 지역의 숲과 환경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서겠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숲은 오늘도 내게 속삭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 한상경의 아침고요 산책길 중에서 -  
올해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힘차고 당당하게 활동하겠습니다.

interviewer 정희 회원기자



일러스트 - 황지현 회원